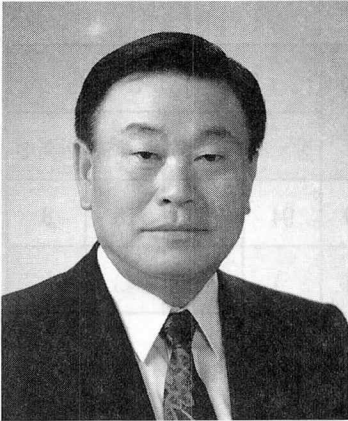


네트워크사회 중추적역할



정보통신 전면개방의 원년, 병자년이 밝았습니다.

세계 신교역질서에 따라 시장을 활짝여는 새로운 개방의 시대가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이라는 현실을 피부로 실감하며 우리는 기회가 넘친 일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정된 지금 우리 정보통신인의 분발이 그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을 축으로 하는 본격적인 네트워크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은 네트워크 사회에 네트워크 문화라는 새로운 시대창출의 기수로서 그 사명과 책임은 무한한 확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간 가꾸어 온 힘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을 지렛대로 삼아 도약의 한해를 맞이해야할 것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의 제품의 질을 다듬는 물리적인 측면외에 자율성과 창의성 등 휴먼리소스에 관계된 분야에 관심과 투자를 더욱 늘리도록 해야합니다.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발전이 국가경쟁력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만큼 정보통신인의 시대적 소명의식과 미래에 대한 통찰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발전모델 개발에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전체와 부분이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수직과 수평의 좌표위에 놓일 수 있게 해야합니다.

국가간 상호개방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주어지는만큼 좁은 국내시장을 극복하여 세계화로 가는 좋은 기회를 살릴 국제화 방안마련도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유연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그들이 가진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속에 정보통신산업이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이제는 눈길을 돌릴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 이런 관점에서 조사통계사업, 국제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그리고 회원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자합니다.

협회가 지난해 통계청으로부터 지정통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정보산업 각종 통계조사에 역

하기 위해 거듭 도약하는 해

점을 두어 VAN, LAN 등 업종별은 물론 인력, 통신설비 등 조사범위를 산업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협의회를 구성, 변변한 통계자료가 없는 우리 산업에 과학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진국 통신업체의 무차별 국내 진출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갖는 한편 해외 동향을 분석하는 데도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업계 중소기업을 위해, 그리고 창조적 두뇌의 창출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량이용자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불건전 사용을 바로잡아 올바른 이용자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통신사업자 등 기존의 업종별 협의회 외에 PC통신협의회 등을 추가하고 의미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EDI대신 새로 부각되고 있는 EC(Electronic Commerce)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신정보기술을 유연하게 수요하도록 업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PC통신이 활성화되면서 불건전정보 유통방지책이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의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회원사에 의한,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한 직원의 회원전담제를 더 활성화시켜 회원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같이 타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센 변화의 물결속에 협회가 해야 할 일들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네트워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올해도 도약을 거듭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전념할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아무쪼록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결실이 가득한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1996년 정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 장 남 궁 석